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목표가격 동결)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

올해 쌀 목표가격 170,083원/80kg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61,265원/80kg으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목표가격 하락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대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한농연의 대응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1. 지금까지 논의 동향은?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한나라당 홍문표(홍성·예산)국회의원에게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현재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의 반대로 인해 계류되고 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쌀 목표가격 동결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 심의와 통과시 정부의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12월 말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농림부는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인해 연초에 목표가격 하락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2. 쌀 목표가격 하락은 쌀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현재 농업·농촌은 한미FTA 등 정부의 무차별적 개방 정책과 농가소득 감소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 세계는 식량 재고 감소,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식량 대란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쌀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육성 대책 없이 쌀 목표가격은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쌀 목표가격이 하락 할 경우 벼 재배 농민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쌀 소득은 5% 가량 감소하였다. 더욱이 올해처럼 병충해와 자연 재해로 인

해 생산량이 감소 할 경우 농가소득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농약과 비료 등 생산비와 물가는 급등하여 농가 실질 소득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쌀 목표가격 하락은 현장 농민들을 공황 상태로 빠지게 할 수 있다.

3. 쌀 목표가격 산정 방식과 정부의 주장은 문제가 없는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170,083원/80kg인 쌀 목표가격은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 161,265원/80kg으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쌀 목표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은 정부가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당시 쌀값 등락에 따라 목표가격도 3년 단위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실제 쌀값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2014년, 121,900원/80kg으로 하락이 예상되어 있다. 이럴 경우 2014년 쌀 목표가격은 138,000원/80kg으로 하락하여 농가소득 지지라는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논리도 문제가 많다. 농림부는 쌀 직불금이 구조조정을 저해한다고 항변하지만 농경연의 연구 결과 목표가격 하락과 벼 재배면적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는 농림 부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우려하지만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8.5%보다 턱없이 낮은 2.9%에 불과하다

4. 향후 전망과 한농연 대응활동 방향은?

현재 쌀 목표가격 동결법은 17대 회기중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회기중에 발의된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월 중순 쌀 목표가격 동결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 서명서를 국회 청원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가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을 대선 농정 공약으로 발표했다기 때문에 그 유력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응활동을 통해 입법화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 시작 전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쌀 목표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한농연 시군구 회장이 지역구 소속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각 당의 당론 채택도 촉구할 방침이다.